
송년·신년에 읽는 명시 몇 편

김재홍·문학평론가·경희대 교수

1. 겨울 바다에서 마음을 정리하다

연말이 다가올 무렵이면 문득 겨울 바다로 떠나가고 싶습니다. 육지의 끝이면서 바다가 시작되는 경계선, 겨울 바닷가를 거닐면서 묵은 한 해를 정리하고 새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세밑의 번잡한 일상사를 떨쳐 버리고 겨울 바다로 시의 여행을 떠나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겨울 바다에 가 보았지
未知의 새
보고 싶던 새들은 죽고 없었네

그대 생각을 했건만도
매운 해풍에 그 진실마저 눈물져 얼어 버리고

허무의
불

물이랑 위에 불붙어 있었네
나를 가르치는 건
언제나/ 시간……
끄덕이며 끄덕이며 겨울 바다에 섰었네

남은 날은
적지만

기도를 끝낸 다음
더욱 뜨거운 기도의 문이 열리는
그런 영혼을 갖게 하소서

남은 날은
적지만

겨울 바다에 가보았지
忍苦의 물이
水深속에 기둥을 이루고 있었네

— 김남조 「겨울 바다」

이 시 「겨울 바다」는 그 핵심이 물과 불의 긴장력 또는 부정과 긍정의 변증법에 놓여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삶이란, 사랑이란 바로 것처럼 불과 같이 뜨거운 열정과 물과 같이 차가운 냉정이 무시로 교차되고 반복되는 것이 아닌지요? 생성과 소멸, 이성과 감정, 정염과 허무, 육신과 정신, 신성과 세속, 희망과 낙망의 대립 또는 화해 속에서 전개되어 가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어찌면 이러한 대립과 화해란 '새들은 죽고 없었네/진실마저 눈물져 얼어 버리고'와 같은 부정의 인식으로부터 시작되어 '허무의/불/물이랑 위에 불붙어 있었네'와 같은 격심한 갈등을 겪고, 마침내 '나를 가르치는 건/언제나/시간……/끄덕이며 겨울 바다에 섰었네'처럼 깨달음 또는 긍정의 모티브를 마련해 가게 되는 모습이라고 할 겁니다.

이렇게 보면 이 시 「겨울 바다」의 의미는 자명해질 겁니다. 그것은 좌절

과 절망 끝에 육지가 끝나고 바다가 시작되는 대립적인 것의 경계선 바닷가에서, 스스로 참회와 정죄를 겪으면서 새롭게 자기 극복과 부활을 성취해 가는 안타까운 통과 제의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겨울 바다는 뉘우침과 속죄의 장소이면서 동시에 부활과 재생의 장소라고 하겠지요. 실상 우리는 한 생애를 살아가면서 잃을 수 있기에 얻을 수 있는 것이며, 헤어질 수 있기에 새롭게 만날 수 있고, 또한 죽어 가는 사람이 있기에 새로운 아가의 탄생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 자명한 이치이겠지요.

바로 이 점에서 이 시는 겨울이라는 묵은해와 새해의 교차점에서 또 바닷가라는 공간적 경계선에서 삶의 거둠 태어남 또는 사랑의 거둠남을 「겨울 바다」라고 하는 부활의 동굴, 또는 無의 통과 과정을 통해서 성취해 가게 되는 모습을 보여 준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어디 가까운 바닷가라도 가서 묵은 한 해를 털어 버리고 새해맞이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2. 크리스마스를 뜻있게 보내며

즐거운 성탄절 무렵, 우리 이웃의 가난한 아이들, 길 잃고 방황하는 어린양으로서 소외된 이웃들을 찾아 아픔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기쁨을 함께 더하면 어떻겠습니까? 그야말로 한해를 보내는 보람과 의미가 새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요.

내용 없는 아름다움처럼

가난한 아희에게 온
서양 나라에서 온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카드처럼

어린양들의 등성이에 반짝이는
진눈깨비처럼

— 김종삼 「복 치는 소년」

한 해를 보내면서 떠올리는 또 한 편의 시는 바로 이 「북 치는 소년」입니다. 그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세모의 거리에서 '북 치는 소년'의 라뻬뻬뻬 북치며 부르는 캐럴송 말입니다.

그런데 내용 없는 아름다움이라뇨? 삼라만상 모든 게 내용과 형식으로 구성되기 마련인데 내용 없는 아름다움이라는 게 선뜻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술 세계에서 특히 시에서 그것은 충분히 가능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형식만으로도, 꾸밈새 또는 표현 하나만으로도 얼마든지 아름다운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삶에 있어, 존재에 있어 꼭 내용이나 주제가 크고 무거워야 그것이 의미가 깊고 가치가 큰 것이라고 단정하긴 어려울 겁니다. 이름 모를 산모퉁이에 쓸쓸히 피어 있는 단순 소박한 들꽃 하나가 오히려 깊고 아름다운 울림을 줄 수 있듯이 우리네 삶에 있어서도 착한 눈망울의 어린 아이 하나, 또는 작은 진실 하나가 때로 진한 마음의 울림을 던져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살이에서 너무 거대 담론, 큰 것들, 무거운 주제들에 짓눌려 살아가고 있기에 때로는 작은 진실, 소박한 표현 하나에서 더 큰 감동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시가 그렇지요. 한 해가 기울어 가고 거리에 크리스마스 캐럴이 울려 날 즈음이면 무언가 무거운 것들을 훌훌 떨치고 가볍고 자유로워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가난한 아희에게 온/서양 나라에서 온/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카드' 하나가 가난한 소년에게 큰 기쁨과 삶의 보람을 느끼게 하는 선물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릴 때 색깔 고운 크리스마스 카드 한 장 받고서도 밤새 설레고 기뻐던 그 추억이 생각나는 것이지요. 그러노라면 '어린 양들의 등성이에 반짝이는/진눈깨비'의 눈 내리는 모습 속에서 살아 있음의 기쁨과 아름다움을 짙하게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난한 소년과 어린양의 여리고 슬픈 모습 속에서 생명의 소중함과 함께 살아 있음의 고마움, 그리고 작은 진실의 아름다움을 애잔하게 느낄 수 있다는 뜻입니다.

3. 송년에 참회록을 쓰다

제야, 종소리 속에 촛불이 찌르르 녹아내리면서 한 해가 저물어 가면 우리는 깊은 후회와 함께 부끄러움으로 뒤채이게 됩니다. 특히 추위 속에서 고생하는 병사들이나 밤바다 어둠과 추위 속에서 떨며 일하는 어부들, 고통 받는 분들을 생각하노라면 수심마저 깊어지게 마련이지요. 이국땅에서 태어나 평생 객지를 떠돌다가 스물여덟 아까운 나이로 작고한 운동주의 순결한 영혼과 그의 맑은 시들을 떠올리노라면 새삼 제가 얼마나 때 묻은 인간이고 참회해야 할 사람인가 또, 세상에 겸허해지고 사람들에게 감사해야 하는가를 뼈저리게 절감하곤 합니다.

파란 녹이 낀 구리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 있는 것은/ 어느 王朝의 遺物 이기에/ 이다지도 욱될가// 나는 나의 懺悔의 글을 한 줄에 주리자/ — 滿二十四年一箇月을/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든가//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懺悔錄을 써야 한다./ —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告白을 했든가//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어 보자// 그러면 어느 隕石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나온다.

— 운동주 「참회록」

그렇습니다. 육체의 길, 죄의 길은 지상을 살아가는 인간의 길이기에 죄와 속죄, 참회는 인간의 몫이자 사람에게 있어 운명의 길에 해당합니다. 육체를 지니기에 욕망을 갖게 되고 그래서 죄업을 쌓아갈 수밖에 없다는 말 씀이지요. 따라서 늘 속죄하고 참회하는 가운데 인간은 거듭나고, 새로 태어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또 그러기에 神의 음성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주는 늘 자신을 반성하면서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다짐하는 가운데 새롭게 부활하고 새 생명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한 생애는 욕망을 덜어 내는 일이고 스스로 죄를 씻는 일이며, 그렇게 해서 영혼이 맑아지고 정신이 자유로워지는 길을 가는 일입니다.

윤동주의 한 생애가 비록 불우와 외로움 속에 사라져 갔다 해도 그가 보여 준 맑은 영혼과 고귀한 정신에의 지향과 갈망은 어두운 시대일수록 오래도록 우리의 문학사, 한국인의 정신사에 살아남을 것이 분명합니다.

4. 눈 내리는 고향 들길에 서서 길을 찾다

눈물의 시인 박용래(朴龍來)를 기억하시는지요, 요즘 같은 기계 문명과 자본주의의 홍수 시대, 거칠고 소란한 세상에는 도무지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이지만요, 그렇기에 더욱 그림고 소중하게 생각되는 시인이랍니다. 그야말로 토종 한국인이고, 진짜 서정 시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저 말고도 많으실 겁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분 댁에서 한두 번 만났을 뿐이었지만요, 만나자마자 덥석 손을 잡으시고 뜨거운 눈물을 펴펴 쏟으시는 게 아니었겠습니까? 무명 평론가를 그리도 따뜻하게 손잡아 주시던 그 선량하고 순수한 마음이 지금도 마음에 쫓하게 다가옵니다.

아마도 그러할 겁니다. 시와 인간이 그렇게 잘 어울리는 분이 세상엔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그의 시에는 그만큼 인간의 본원적인 마음의 형태인 쓸쓸하면서도 아름답고, 슬프면서도 따뜻한 영혼이 애잔하게 스며들어 있는 듯싶습니다.

잠 이루지 못하는 밤 고향 집 마늘 밭에 눈은 쌓이리.
잠 이루지 못하는 밤 고향 집 추녀 밑 달빛은 쌓이리.
밭목을 벗고 물을 건너는 먼 마을.
고향 집 마당귀 바람은 잠을 자리.

— 박용래 「겨울밤」

늦은 저녁때 오는 눈발은 말집 호롱불 밑에 봄비다.
늦은 저녁때 오는 눈발은 조랑말 발굽 밑에 봄비다.

늦은 저녁때 오는 눈발은 여물 썬 소리에 봄비다.

늦은 저녁때 오는 눈발은 변두리 빈 터만 다니며 봄비다.

— 박용래 「저녁 눈」

그의 시에는 유난히도 ‘겨울·저녁·노을·밤’과 같은 쓸쓸한 시간 배경과 ‘가랑잎·눈발·달빛·들풀·잡목 숲’ 등의 소박한 전원 심상, 그리고 ‘운다/떨어지다/사라지다/뉘우치다/묻히다’ 등과 같은 하강 시어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언젠가 제가 ‘전원 상징과 낙하의 상상력’이라고 불러 본 적도 있습니다만, 그의 시에는 자연과 인간에 대한 근원적인 향수와 애수가 짙게 깔려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연이 지닌 본원적 모습으로서의 적막감과 인간의 영혼 깊이 자리한 생래적인 외로움에 대한 탄식이며 슬픔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시에서 ‘눈발은/말집 호롱불 밑에 봄비다/여물 썬 소리에 봄비다/변두리 빈 터만 다니며 봄비다’와 같이 생명 감각을 일깨워 주는 서정적인 소재와 리듬 의식의 섬세한 결합은 한국적 서정의 한 본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올겨울에는 가까운 교외의 들길 또는 어디 먼 고향 집이라도 훌쩍 떠나 가서 오랫동안 잊고 있던 풍경과 사람들 속에서 잃어버린 시간과 생명력을 찾아보시면 어떻습니까.

5. 눈 내리는 밤, 흰 당나귀를 그리워하며

우리 현대 시사에서 북방 정서를 잘 형상화해 낸 분들이 몇 분 계시지요. 함북 경성에서 두만강 주변의 정경을 잘 그려 준 김동환 시인과 이용악 시인을 꼽을 수 있을 것이고요, 평안도 지역 정서는 소월과 백석이 대표적인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이 두 분은 평안 방언과 그 지역 사람들의 질박한 생명력에 바탕을 둔 북방 정서를 잘 드러내면서 우리 민족 문학의 문학적 자산을 풍요롭게 해 준 데서 그 문학사적 의미가 드러납니다.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 밤은 푹푹 눈이 내린다// 나타샤를 사랑은 하고/ 눈은 푹푹 날리고/ 나는 혼자 쓸쓸히 앉아 소주를 마신다 / 소주를 마시며 생각한다/ 나타샤와 나는/ 눈이 푹푹 쌓이는 밤 흰 당나귀 타고/ 산골로 가자 출출이 우는 깊은 산골로 가 마가리에 살자// 눈은 푹푹 나리고/ 나는 나타샤를 생각하고/ 나타샤가 아니 올 리 없다/ 언제 벌써 내 속에 고조곤히 와 이야기한다/ 산골로 가는 것은 세상한테 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 같은 건 더러워 버리는 것이다// 눈은 푹푹 나리고/ 아름다운 나타샤는 나를 사랑하고/ 어데서 흰 당나귀도 오늘 밤이 좋아서 응양응양 울을 것이다

— 백석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시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는 눈 내리는 겨울 압록강, 두만강 등 국경 지방의 이국적 풍정을 바탕으로 연애 감정과 함께 소외 감정, 즉 세상과의 단절과 불화 의식을 잘 드러낸 것으로 생각됩니다. 끊임없이 눈은 내리고, 내려서 쌓이면서 지향 없는 마음의 외로움과 그리움, 그리고 기다림을 더욱 안타깝게 만들어 주는 것이지요. 그런 밤에는 쓸쓸히 혼자서 소주를 마시면서 나타샤, 그리운 이를 더욱 그리워하면서 하염없이 내리는 눈발처럼 어디론가 연인과 함께 떠나가고 싶은 것입니다. ‘나타샤와 나는 눈이 푹푹 쌓이는 밤 흰 당나귀 타고/산골로 가자 출출이 우는 깊은 산골로 가 마가리에 살자’라는 구절처럼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소외와 낙백한 심사를 스스로 달래고 위무하기에 이 시는 백석의 인생관을 잘 보여 준다고 하겠습니다. ‘산골로 가는 것은 세상한테 지는 것이 아니다/세상 같은 건 더러워서 버리는 것이다’라는 구절이 그것이지요. 1930년대 후반 서울이 상징하는 권위적인 식민지적 생활 방식 또는 세속적인 삶에 환멸을 느끼고 신문사라는 안정된 직장을 버리면서까지 만주로 어디로 떠돌면서 젊은 날을 보낸 백석 시인의 유랑인의 기질, 자유인의 정신을 엿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백석 시인처럼, 시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의 마을에서, 그렇게 한세 상 외롭고 고단하지만 오히려 자유로이 낭만적으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하는 건 비단 저뿐만은 아니겠지요?

6. 새해 아침 겨울 산을 오르다

새해 겨울이 깊어 가면 저는 한 번씩 근교의 산을 찾아 오르면서 조정권의 시 「산정 묘지」를 읊조리곤 합니다. 눈에 덮인 서울 성곽 길이나 스카이웨이 또는 북한산이나 관악산 또는 수락산이나 소요산을 혼자 오르노라면 찬바람 속에서 삶이란 결국 나 혼자 가는 길이고, 나 자신과 싸우는 일이며, 최후의 적도 바로 나 자신이라는 엄연한 사실을 다시금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삶이란 갈수록 쓸쓸한 것이고 허무감을 느끼기 마련이라는 사실도 새삼 절감하게 됩니다.

겨울 산을 오르면서 나는 본다./ 가장 높은 것들은 추운 곳에서/ 얼음처럼 빛나고./ 얼어붙은 폭포의 단호한 침묵./ 가장 높은 정신은/ 추운 곳에서 살아 움직이며/ 허영계 얼어터진 계곡과 계곡 사이/ 바위와 바위의 결빙을 노래한다./ 간밤의 눈이 다 녹아버린 이른 아침./ 山頂은/ 얼음을 그대로 뒤집어 쓴 채/ 빛을 받들고 있다./ 만일 내 영혼이 天上의 누각을 꿈꾸어 왔다면/ 나는 신이 거주하는 저 天上의 一角을 그리워하리./ 가장 높은 정신은 가장 추운 곳을 향하는 법./ 어둠은 존재의 處所에 뿌려진 生木의 향기/ 나의 영혼은 그 향기 속에 얼마나 적셔두길 갈망해 왔던가./ 내 영혼이 내 자신의 축복을 주는 휘황한 白夜를/ 내 얼마나 꿈꾸어 왔던가./……중략……육신이란 바람에 굴러가는 흰 누더기에 지나지 않는다./ 영혼이 그 위를 지그시 내려누르지 않는다면.

— 조정권 「山頂墓地·1」

그렇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 우리는 ‘가장 높은 것들은 추운 곳에서/얼음처럼 빛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새삼 ‘가장 높은 정신은/추운 곳에서 살아 움직이는’ 평범한 진실을 깨치게 됩니다. 그러기에 알피니스트들이 목숨을 걸고 에베레스트 산정에 오르는 것이고, 예술가들이 혼의 울음 속에서 저 높고 깊은 절대의 소리, 神의 음성을 드러내려고 고군분투하는 것이 아닐는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또 깨닫습니다. 겨울 산을 오르는 고심참담 역경과 고난 속에서 절망이 바로 삶에 있어 슬픔의 힘과 희망을 줄 수 있는 「生木의

향기』라는 것을……. 그리고 ‘육신이란 바람에 굴러가는 흰 누더기에 지나지 않는다/영혼이 그 위를 지그시 내려누르지 않는다면’과 같이 높고 깊은 진리를 깨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혜로운 선인들은 산을 오르면서 삶을 깨닫고 자신을 극복하면서 정신의 고양과 구원을 향해 나아가려 노력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렇다면 ‘산정 묘지’란 과연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산정’이란 산꼭대기, 즉 지상에서 가장 높은 지점이기에 그곳은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 하늘이 시작되는 곳이지요. 그만큼 축고 적막한 곳입니다. 그런가 하면 ‘묘지’란 죽음, 즉 지상에서 영원으로 옮겨 가는 지상의 끝이면서 죽음 세계의 시작점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것은 이승과 저승의 경계이자 통로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조정권의 ‘산정 묘지’란 바로 김남조의 ‘겨울 바다’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세계가 끝나면서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는 경계선이자 출발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끝과 시작, 소멸과 생성, 죽음과 부활, 절망과 희망이 서로 얼크러들면서 새 출발을 다짐한다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세모와 새해에는 겨울 바다를 산책해 보시거나 겨울 산을 올라 보시면서 지난 한 해 묵은 삶을 정리하고 새해 새 마음으로 겨울 출발을 시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